

- 주요 뉴스: 연준과 ECB의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
 - OECD,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. 유럽이 큰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
 - 중국 인민은행, 외환선물 거래에 20% 증거금 부과. 위안화 약세 방지가 목적
 - 일본은행 총재, 원화 기조 유지. 장기간 초저금리 유지 관련 의견은 다소 후퇴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지속
 주가 하락[-1.0%], 달러화 강세[+0.8%], 금리 상승[+24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경기둔화 우려 등이 반영
 유로 Stoxx600지수는 역대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0.4%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세 유지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8%, 1.0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(+42bp) 급등 등이 영향
 독일은 ECB의 긴축 기조 유지 전망 등으로 9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29.9원, -1.4원) 약보합, 한국 CDS 상승

		9/26일	9/23일	전일대비			9/26일	9/2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655.0	3,693.2	-1.03%	국채 금리 10y	미국	3.92%	3.68%	24bp
	유럽	388.75	390.40	-0.42%		독일	2.12%	2.02%	9bp
	중국	3,051.2	3,088.4	-1.20%	CDS 5y	한국	54bp	50bp	4bp
	일본	26,432	휴장	-2.66%		중국	108bp	104bp	4bp
	한국	2,220.9	2,290.0	-3.02%	위험 지표	EMBI+	-	447	-
환율	달러지수	114.11	113.19	0.81%		VIX	32.26	29.92	7.82%
	유로화	0.9609	0.9687	-0.81%		WTI유	76.71	78.74	-2.58%
	엔화	144.75	143.31	-0.99%	원자재	구리	331.4	337.2	-1.72%
	위안화	7.1372	7.1283	-0.12%		금	1,622.4	1,643.9	-1.31%
	원화	1,431.3	1,409.3	-1.5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과 ECB의 주요 인사,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추가 금리인상 필요

- 미국 보스턴 연은의 콜린스 총재는 경기 둔화 가능성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지지한다고 발언. 물가안정을 위해 고용 감소 혹은 실업률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최근 인플레이션은 점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
-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투자자의 금융시장 관련 시각보다 인플레이션 제어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. 한편 영국 등 유럽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,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는 의견 피력
- 클리블랜드 연은 메스터 총재도 긴축적 통화정책이 보다 장기간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. 이를 통해 실질금리가 플러스를 나타낼 때까지 인상되고, 그 수준에서 상당 기간 유지되어야 한다고 부연
- 한편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되어도 인플레이션 기대 및 수요 억제를 위해 향후 수차례에 걸친 금리인상을 예상. 한편 금년 말 혹은 내년 초 유로존이 기술적인 경기침체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첨언
- 데 퀴도스 부총재 역시 유로존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투자와 소비지출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. 향후 금리는 경제지표 등에 좌우될 것이며, 은행권은 경기둔화를 대비하여 충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OECD, 내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하향. 유럽이 큰 충격에 직면할 가능성

- 금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은 이전과 동일(3.0%→3.0%)했으나 내년은 고물가를 이유로 낮춰서 제시(2.8%→2.2%). 미국(2.5%→1.5%, 1.2%→0.5%), 유로존(2.5%→3.1%, 1.6%→0.3%), 중국(4.4%→3.2%, 4.9%→4.7%) 등 대부분의 경우 하향 조정
- 유로존은 금년 성장률 전망이 상향되었으나, 내년에는 역성장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.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은 내년 역성장(-0.7%)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
-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. 에너지 공급 부족의 여파로 물가 폭등과 성장 둔화를 겪을 수 있으며, 특히 유럽이 관련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발언

■ Morgan Stanley, 달러화 강세는 금융시장 혹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소지

-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, 유럽 재정위기 등 역사적으로 달러화 강세는 심각한 위기를 동반했다고 평가. 아울러 각국의 통화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(Michael Wilson 스트래티지스트)

■ 독일 9월 Ifo 경기업황지수, '20년 5월 이후 최저. 물가불안 등이 영향

- 9월 Ifo 경기업황지수는 84.3로 전월(88.6) 및 예상치(87.0)를 하회하면서 4개월 연속 내림세. 세부적으로 현황지수(97.5→94.5) 및 기대지수(80.5→75.2) 모두 큰 폭 하락.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경기부진 우려 등이 반영

■ 영란은행 총재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금리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방침

- 베일리 총재는 금융시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, 필요 시 적극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겠다고 발언. 다만 정부와 영란은행은 파운드화 가치와 국채 가격의 하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시행(Capital Economics의 Paul Dales)

■ 중국 인민은행, 외환선물 거래에 20% 증거금 부과. 위안화 약세 방지가 목적

- 9/28일부터 외환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거래액의 20%를 인민은행에 예치할 필요. 이번 조치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위안화 약세가 멈췄으나, 역내시장 종가 기준 위안화는 결국 28개월래 최저(1달러당 7.15위안) 수준에서 마감

■ 일본은행 총재, 완화 기조 유지. 장기간 초저금리 유지 관련 의견은 다소 후퇴

- 구로다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해 강력한 통화정책 완화를 고수할 것임을 재확인. 다만 최근의 낮은 금리가 2~3년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, 이는 2~3년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전의 발언과 상이. 한편 순이치 재무상은 필요 시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26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시카고 전미경제활동지수: 0.00, 7월(0.29), 예상치(-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27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파월 의장·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·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,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과 유동성 우려 등에 기인 - 블룸버그

(Why Investors Are Facing Even More Market Instability)

- 금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은 ①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②경제성장 둔화 ③지정학적 위험과 세계화 후퇴라는 세 가지 패러다임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, 이는 경제 및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예상된 격변
- 여기에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가세하며 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. 첫 번째는 '정책 신뢰성 저하'로 지난주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영국의 재정부양책 등이 이에 해당
- 두 번째는 '시장유동성 불안 징후'로 주식·채권 펀드자금의 대규모 유출, 옵션 헤지 관련 거래쏠림 현상 등은 시장의 정상적 기능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초래

■ 미국 달러화 강세, 당분간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전망 - Financial Times

(The dollar that Washington doesn't yet want to weaken)

- 미국의 강달러와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파급.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이 자국 통화의 과도한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역부족인 상황. 최근 달러화의 강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금리와 성장률을 반영하기 때문
- 특히 G2로 인식되는 미국과 중국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모습. 중국은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기에 위안화 약세를 용인. 미국의 경우 물가안정을 강조하는데 달러화 강세가 이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이기에 미온적 태도 유지

■ 영란은행의 환율 방어, 사용 가능한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- 블룸버그

(Defending the Pound: Here Are the BOE's Risky Options)

- 최근 달러화와 파운드화 가치가 패리티(등가)에 근접하면서 관련 위험이 부각. 시장에서는 영란은행이 이와 관련 4가지 활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. 첫째, 구두개입. 이는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
- 둘째, 금리인상. 시장에서 이미 2.0%p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, 이보다 더 큰 폭의 인상만으로 가시적인 효과 기대. 하지만 큰 폭의 금리인상은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기조가 다르다는 문제점 내포
- 셋째, 외환시장 직접 개입.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1080억달러로 규모가 작고, 효과 또한 단기에 그칠 우려. 넷째, 영란은행의 관망. 시장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

■ **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가 하락, OPEC+의 개입을 유도할 가능성 - 블룸버그**
(Oil Retreat Deepens as Dollar's Surge Looms over Commodities)

- 유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, 에너지 수요둔화 등에 더해 달러화 강세도 가세하며 하락세가 심화. WTI의 경우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금년 1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
- 일각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(OPEC)가 유가하락을 제한하기 위해 구두개입 또는 감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. 유가가 이미 OPEC+ 회원국 내부 전망치를 하회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는 OPEC+의 시장 개입 방어식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

■ **IMF 구제금융,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사상 최대 - Financial Times**
(IMF Bailouts hit record high as global economic outlook worsens)

- '22년 8월말 기준 IMF의 대출금액은 44개 프로그램에서 1,40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. 약정 후 미집행 자금까지 포함하면 2,680억달러를 상회
- Global Development Policy Center에 따르면, 55개 빈곤국의 '22~ '28년 상환 예정 부채규모는 4,360억달러 '22~'23년 상환 금액만도 1,220억달러에 육박
- IMF는 필요시 국가별 대출한도(IMF quota의 145%) 이상의 구제금융 지급을 승인하는 한편, 회복·지속가능기금(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trust), 식량난 지원 창구(food shock window) 신설 등을 통한 지원을 모색

■ **세계경제 불황, 원자재 시장보다는 강달러가 더 큰 요인 - 블룸버그**
(Commodity Markets Brace for a Rampant Dollar)

■ **미국 증시 벨류에이션, 악화된 투자심리와 다른 신호를 발신 - 블룸버그**
(So You Say You're Bearish on Stocks, But Are You Really?)

■ **영국의 금융시장 혼란, 정부의 불분명한 성장계획 등에 기인 - WSJ**
(Britain's Sketchy Growth Plan Is Scariest Than Its Bond Vigilantes)

■ **러시아의 핵무기 위협, 서방은 오폭이 아닌 신중한 접근 필요 - Financial Times**
(Putin's nuclear threats cannot be ignored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